

부흥의 이면, 양지의 그늘

- 기독교비평서로 보는 한국 교회

주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교수)(4-3)

논문초록

교회는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여 세워지므로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본질을 잃으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지탄받는 위기에 떨어지기도 했다. 세계교회는 교회의 이런 이중적 모습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현대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화기때부터 한국의 개혁과 부흥,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기독교비평서에서 찾아보며 회복과 대안에 관해 고민해본다.

주제어: 기독교비평서, 교회의 본질, 현대 한국 교회, 신학, 교회론, 목회학, 교회성장학, 위기설, 회복과 대안

I.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는 1985년도에 선교 100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에 이룬 양적 질적 성과는 세계교회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한국 교회는 구한말 개화기, 일제시대, 광복과 6·25전쟁, 분단시대와 민주화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복음,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은 긍정의 긍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명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가던 1980년대 의 아스린 현상이 등장했다. 전도율의 정지와 함께 교회 비판이 전례없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담론 파괴와 탈중심적 사고 유형이 자리잡고 있어서, 성역(聖域) 뒤집어보기, 빼박하게보기, 거꾸로보기 등 변칙적이며 과장된 비판의 표적이 된 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정신(Zeitgeist)의 흐름이 그렇다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안고 있었던 비판의 근거 제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교회가 긍정의 힘에서 부정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1980년대 초반에 나온 두 권의 책은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80년의 문을 여는 해에 한완상 교수는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독교비평서를 출간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까지의 한국사 격변기를 완수한 한국 교회의 피곤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일으킨 이들의 화려한 외관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내적 황폐함에 버금가는 현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 한국 교회는 절망과 희망을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몸부림쳐온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교가 한국 땅에서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지불하게 되었던 것이다”(한완상, 1981: 3).

1983년에 또 한 권의 기독교비평서가 출간되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같은 제목이었다. 책 머리말에서 마경일 목사는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 우리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수량적, 경제적 성장과 함께 그 이면에 수반되고 있는 내적 모순과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이를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이상근, 1983: 3).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한완상 교수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과 함께 회의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를 교회의 개혁과 발전에 두었다. “이러한 노출이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 저력을 다시 확인하면서 새 역사를 만들 힘을 길러 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한완상, 1981: 4).

이상근 목사의 책에서도 유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세기의 경험을 토

대로 우리 자체를 좀더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올 1세기를 내다보며 한국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이상근, 1983: 4).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 개신교 내에서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시작”(이상성, 2007: 7)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의 두 인용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 글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담당해온 긍정적 역할의 이면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한국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면서 존재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3. 논지의 구성과 차례

본고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하여 뼈아픈 자기반성과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기독교비평서들이 발간되어 사회와 교회에 경종을 울렸다.¹⁾ 그 중에서 최근 발간된 3권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이상성(2007), 『추락하는 한국 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 황규학(2008), 『한국 교회, 상식이 운다』, 서울: 에클레시안.
- 김두식(2010),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세 권의 공통점으로는 발간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상성과 황규학의 책이 각각 2007, 2008년에 나왔다면 김두식은 2010년에 출간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되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기독교비평서가 집중적으로 독자를 찾아온 것은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간절해 보인다. 기독교인이면서 교회와 교계, 그리고 기독교학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이상성은 이렇게 고백한다. “처음에(아프가니스탄 선교단 인질사건, 필자 주) 관망적인 태도를 가졌던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 의식이 들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그것을 바로 잡아줄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책임의 입장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상성, 2007: 4,5).

황규학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늘날 개신교는 구한말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개신교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황규학, 2008: 5, 14). 김두식은 교회에 대한 비평서를 쓰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간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책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집중하도록 모든 상황이 저를 구석으로 몰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김두식, 2010: 6).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나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칼을 겨누는 심정은 반가운

1) 기독교비평서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저술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과 비평을 다룬 책들은 관점이 달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양낙홍(1996), 한국 사회와 문화, 거둬야한다, 서울:IVP;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편(1992), 사회 변화와 기독교 윤리, 서울: 종로서적 등이다.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역적 모의’처럼 보이는 일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한쪽에서는 자성이요 다른 한쪽에서는 예언자적 책임감 때문이었다.

세 명의 저자는 신앙과 교단 배경, 신학사상이 다르지만 그 논지가 한결같이 애정어린 비평에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²⁾ 1980년대 기독교비평서의 저자들이 가졌던 심정이 21세기의 저자들에게서도 느껴지는 것은 그들 모두가 기독교에 대한 사랑에서 비평, 즉 발전적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II장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던 1980년대 중반기 기독교에 나타난 현상을 지적한다. 성장정지 내지는 후퇴론이 그것이다. 1970년대까지 고속성장을 하던 기독교 전도율이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후락하기 시작한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또한 기독교가 전래없이 사회로부터 담을 쌓고 있다고 지적받으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조언을 들어야했다. 교회가 일종의 계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요소는 안티기독교의 등장이다.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논리적으로 기독교에 “개독교”라는 말로 ‘딴지걸기’를 시도했다.³⁾ 이 현상들은 기독교비평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 사실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III장은 기독교비평서의 본격적인 분석이며 한국 교회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부분이다. 이상성은 그의 책에서 한국 교회는 “문제덩어리 종합선물세트”(이상성, 2007: 13)라고 지목하면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추락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규학은 ‘상식이 운다’는 부제를 붙였는데, 한국 교회안에 최소한의 상식도 사라진 듯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의 김두식은 한국 교회가 방향을 거꾸로 잡지 않았는가고 의문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신학적 근거, 교회론적 근거, 목회학적 근거, 교회성장학적 근거 등이다. 첫 번째 다루어지는 신학적 측면은 한국 교회의 심장이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학에 관해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현대 한국 교회는 성경적 교회모델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져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목회의 영역에서 목회자, 성도 등의 관계에 대한 상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교회성장학 부분에서는 서구에서 수입된 교회성장이론이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므로 교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II.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

1. 성장후퇴론

우리나라는 1960년 초두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2) 여기에 언급되는 기독교비평서를 저술한 세명의 저자는 신학 사상에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걸쳐있다. 이 글은 예민한 신학 논쟁은 피하고 현대 한국 교회 비평에 관한 부분을 주 연구대상으로 함을 밝힌다.

3) 안티기독교가 저돌적이며,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합리적인 종교비판을 가한 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숭실대학교 기독교청년들이 『개(開)독교를 위한 변명』(꿈꾸는 터, 2007)이란 제하의 책을 내기도 하였다.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생활여건이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도에 국민소득이 2만불 가까이 되었으며, 시민민주주의와 대통령 직선제, 군부의 통제와 검열이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대중문화 시대도 열렸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뒤안길로 돌아앉아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다. 사회를 책임지고 여러 부문에서 건인차 역할을 해오던 기독교는 대중들에게서 외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그것은 성장정지 및 후퇴라는 용어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을 이끌어오던 기독교가 어떤 이유로 그 영향력을 잃어간 것일까. 기독교비평서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김두식은 세상 속의 교회가 진리와 빛의 역할을 하던 중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온 후부터 교회가 세상에 따라가게 되었다고 분석한다(김두식, 2010: 109f). 그는 이 현상의 전범을 교회사에서 찾았는데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어났다고 본다.

황규학은 또다른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종교 속에서도 상식(common sense)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식을 저버린 종교는 흑세무민을 부른다. 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의 한국의 기독교는 상식의 기독교가 몰상식의 기독교로 전략해 버렸음을 보여줍니다.”(황규학, 2008: 8).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지 않는 교회 모습(목회자, 교인들을 포함하여)에서 세상은 오히려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다.

2. 게토(Ghetto)론

기독교를 난처하게 한 다음 문제는 대중문화가 열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를 얻은 시민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신했던 열정과 창의력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 문화의 향수(享受)로 이어졌다. 미디어의 발달과 정체되어있던 대중의 욕망이 혼합되면서 대중문화는 폭발적인 힘을 얻으며 남녀노소 각계층에 구별하지 않고 파고들기에 이른다. 대중문화는 양면성을 가진 야누스같아서 전체를 보아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인데, 기독교에 관해서도 대중문화는 다양한 모습을 띄었다.

그런데 대중문화와 기독교 간에 문화정체(停滯, cultural lag)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대중문화가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과 느낌을 주된 무기로 한다면 기독교는 전통의 윤리를 고수하는 보수성을 띄게 된다. 이 둘은 문화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관계로 위치하였다.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저급하게 바라보며, 대중문화는 기독교를 고답적인 종교로 여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일부 보수기독교인들 사이에 “사탄이 대중문화를 도구로 삼았다”는 시각이 등장했다.⁴⁾ 이 때 주요 토론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 뉴에이지, UFO, 사이비종교, 사탄숭배, 점성술, 문화이슈 투쟁 등이었는데 중립적인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 뒤 이슈가 된 사안이 큐어(Queer)문화였다. 인권 문제와 함께 성적 소수자들의 삶이 미디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의 커밍 아웃, 성전환자 등이 사회 표면에 등장하였으나 교계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가운데 정죄하는 분위기로 내달았다. 이와 함께 가정해체, 이혼 문제, 장애인,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교계가 끌어안아야 할 많은 부분에서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

4) 신상언(1999),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서울: 낮은다리.

하거나 보수기득권 입장에 서있으므로서 시민들로부터 거리를 느끼게 만들었다. 기독교의 게토 현상은 변화하는 세계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교리를 반복하는데서 얻어진 자업자득이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이상화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는 책을 내면서 교회가 스스로 게토를 형성하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색해가는 과정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⁵⁾

3. 안티기독교 등장

대중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이 이른바 안티기독교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독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이념과 종교가 달라 기독교에 안티하는 이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 안티하는 이들, 기독교에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의 행동에 저항하여 안티하는 이들 등등 다양하다. 그러나 안티기독교의 비판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주장들이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III. 기독교비평서 속의 한국 교회

1. 신학적 측면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폐단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요소로 이상성은 신학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학이 시대의 흐름 면에서 보나 사회인들의 공감대 면에서보나 전(前) 시대적이라 한다. 그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소모적 대립을 앞에 두고 기독교계가 적절치 못한 태도를 취하여 세상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보수 신학을 견지하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키운다고 지적한다(이상성, 2007: 36-60).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신학은 “모순투성이 교리”를 양산한다고 한다(이상성, 2007: 130-155). 그 결과 타 종교와 세계에 대해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므로 주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분석하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이를 극복하라고 권유하고 있다(이상성, 2007: 122).

황규학은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로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고 분석한다(황규학, 2008: 201). 그런데 쉐라이어마허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텍스트보다는 주관적 감정이나 해석이 중요하게 대두하면서 설교가 자칫 “인간의 말장난”에 떨어지는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한다(황규학, 2008: 203).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성경이 설교의 도구”로 전략하며, 그런 설교는 종종 스스로 “모순적, 비성서적, 주관적인 해석”에

5) 이상화(200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 서울: 기독교신문사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황규학, 2008: 203-4).

김두식은 성경을 가운데 두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분석한다. 하지만 그의 시각은 결국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다면, 진보 기독교인들은 아예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김두식, 2010: 106). 그러다보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성경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2. 교회론적 측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자세, 타종교 지역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염려하면서 세 명의 저자는 아프가니스탄 선교피랍 사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상성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사태에 대하여 이렇게 단정한다. “이슬람 지역 선교는 일종의 폭력이다”, “기독교윤리가 실종된 해외 선교는 재앙을 부른다”(이상성, 2007: 237-243).

황규학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하여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슬렘권을 위시한 타종교권에 대한 선교에 “일방적인 공격적이거나 정복주의 선교”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황규학, 2008: 30). 이는 남의 문화와 종교를 경시할 수 있고 나아가 종교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방적 선교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선교를 제시하고 있다(황규학, 2008: 31-32).

그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여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비추인다. 기독교의 공격성은 집단적 집회, 대형집회로 곧잘 표출되었는데, 이는 자칫 “광기의 집회로 둔갑”하거나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황규학, 2008: 45).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교인들을 집단 동원하는 “세 과시”형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황규학, 2008: 48).

김두식은 동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무섭습니다”(김두식, 2010: 17). 그가 느끼는 기독교는 “무례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형화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저자는 수많은 관람객 사이에서 한 사람만 이야기 하고, 다른 이들은 앞에 앉은 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른바 일방통행적 “영화관식 구조”라고 통탄한다(김두식, 2010: 25-26).

3. 목회학적 측면

이상성은 한국 교회가 쇠락해가는 원인의 하나를 목회자에게서 발견한다. 그는 이 현상을 “보수 기독교의 윤리적 타락”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인용한다(이상성, 2007: 201-2). 정치지도자에 대한 야합, 공금 횡령, 성적 문제 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단이라고 비판한 가톨릭은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독신을 강요해왔는데, 개신교는 “교권의 세습”이라는 불법, 편법 교권 이양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상성, 2007: 202). 또한 사학법개정 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보인 것은 목회자들의 윤리관이 왜곡되었다는 방증이다.

황규학은 세습 문제를 더욱 치열하게 분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다. 그의 표현을 보자. “세습도깨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적이 아니라 건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황규학, 2008: 93). 그는 세습이 자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개신교를 통해서 세워진 “간접민주정치인 대의 정치와 직접민주정치인 공동의회의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개탄한다(황규학, 2008: 93). 세습이 일인 독재 카리스마와 같은 전권을 휘두르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이 현상은 “만인제사장설이 아니라 일인제사장설이 지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한다(황규학, 2008: 94).

그가 제안하는 건전한 시스템은 바로 “건전한 청빙위원회”이다. 또한 청빙절차에 대하여 헌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며, 노회의 점검과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세습과 같은 악습은 방지될 수 있다(황규학, 2008: 96).

김두식은 한국 교회의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평신도를 잇는 “브로커”처럼 변질되지 않았는가 회의한다(김두식, 2010: 27). 어려운 문제를 전문회사가 맡아서 대행하는 것처럼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행은 목사가 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목사를 주의 종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모세, 엘리야 같은 구약적 지도자와 동일시하게 하여 전권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김두식, 2010: 64). 그들은 교회 안의 “신본주의”를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중심에 서있는 권력을 누리게 된다. 김두식은 이런 류의 목사들은 회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교회성장학적 측면

우리나라는 교회성장 이론을 주로 미국에서 배워온다. P.와그너(Peter Wagner), 맥가브란(McGavran)등 미국 교회성장학자의 이론이 한국 교회에 직수입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생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성은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 신학을 고집하면서도 교세 확장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태도에 의혹을 품는다. 그는 한국 교회가 교세 확장에 열심하는 가운데 영혼도 팔지 않는가 질문한다(이상성, 2007: 24-25). 이는 윤리의 실종이라는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윤리적 잣대를 성장이라는 유혹 앞에서 쉽게 저버리는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

황규학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와 보라”(요 4:29, come and see)의 선교론에 치중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는 교회가 이제는 일방적인 come의 자세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하는 comm의 선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황규학, 2008: 34).⁶⁾

그는 교회를 세우는 신학생들의 교육기관인 신학교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상식을 벗어나고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현상이 신학교육 기관에서도 발견된

6) comm 은 communication.

다고 지적한다. 목사도 설교 표절과 중복의 죄를 저지르고, 신학교수들도 논문 표절, 중복 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황규학, 2008: 268-9). 그는 신학이 “기득권 사수 신학”으로 편협해져서는 안되며, “사회와 인접된 강좌”(황규학, 2008: 270)를 설치하여 신학생들이 폭넓게 사회와 동시대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두식은 좀더 시야를 넓게 본다. 그는 교회 안에 이혼자, 성적 소수자가 없는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교회가 그들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므로 그들이 떠난다는 것이다. 김두식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혼이 죄나, 동성애가 죄냐라고 묻기 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김두식, 2010: 233f).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성향인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가 한국 교회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반문한다(김두식, 2010: 242). 김두식은 절규하듯 말한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고뇌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일단 죄인이 아닌가부터 따지려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이미 인간보다는 괴물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김두식, 2010: 251).

IV. 나가는 글: 회복과 대안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의 요구는 가히 전방위적이다. 위에서는 토론의 제약 상 4가지 부분으로 요약하여 논의하였지만 좀더 세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성은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가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 교회가 고집하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 보수 신학이 그 아집을 털어버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상성은 자유주의 신학을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타 종교와 대화하고 세계 문화에 상응하는 폭넓은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사회윤리를 다시 회복하고, 종교간 상생과 나아가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이상성, 2007: 285-305).

황규학은 교회법을 연구한 이답게 법적 질서를 확립하므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발생의 여지를 방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교회사에서 보여준 민주적 질서와 의사결정 방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교는 문화선교로, 교단은 질서회복으로, 제도는 법치주의로, 기독교조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교회법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황규학, 2008: 221-255).

김두식은 법학자요 평신도로서 한국 교회에 제안하는데, 먼저 살림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한다. 과거 기독교는 마치 보험회사에 그 역할을 빼긴 것처럼 행동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교회의 책임을 되찾는 일”을 예수님의 평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김두식, 2010: 277). “살림이 지향하는 전쟁없는 상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김두식, 2010: 278).

그는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실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두식, 2010: 298). 그의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진지하다. “형식

에 매몰된 종교지도자들과 달리 늘 본질을 강조하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김두식, 2010: 307).

참고문헌

-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편(1992), 『사회 변화와 기독교 윤리』, 서울: 종로서적.
김두식(2010),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흥성사.
백종국(2003),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신상언(1999),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서울: 낮은울타리,
양낙홍(1996), 『한국사회와 문화, 거듭나야한다』, 서울:IVP;
이상근(1983),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이상성(2007), 『추락하는 한국 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 서울:인물과사상사.
한완상(1981),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황규학(2008), 『한국 교회, 상식이 운다』, 서울: 에클레시안.

참고사이트

- 뉴스앤조이, www.newsjoy.com
뉴스파워, www.newspower.co.kr
미션라이프, <http://www.kukinews.com/mission2>